

책으로 보는 벽골제 1700여년의 역사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사적 제111호인 김제 벽골제 관련 사료를 '김제 벽골제 사료집성'으로 엮어 출간했다.

이번 사료집성 발간은 박물관의 조사연구추진 첫 번째 사업으로 2012년부터 조사해 온 벽골제 등 관련 사료 약 500여건 가운데 총 82건을 선별하여 고문헌 68건, 고지도 14건으로 구성해 편집 및 번역했다. 이와 함께 발간을 통해 신규 발굴된 사료 25건에 대한 번역도 포함됐다. 이는 고려 말부터 조선 중후기의 자료들로 인문지리 및 인물에 대한 고고학, 고지도, 고지도, 고지도를 구성해 편집 및 번역했다. 이와 함께 발간을 통해 신규 발굴된 사료 25건에 대한 번역도 포함됐다. 이는 고려 말부터 조선 중후기의 자료들로 인문지리 및 인물에 대한 고고학, 고지도, 고지도, 고지도를 구성해 편집 및 번역했다.

'김제 벽골제 사료집성'은 고지도·역사 인문지리·수리정책·수리제언·인물·시문 등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고지도와 역사인문지리 장은 김제 벽골제의 역사와 인문지리적 상황을 종합해 정리했다. 이어지는 수리정책과 수리제언 장에서는 조선 전·후기에 집중된 활발한 수리정책과 제언에 관한 논의들을 실록과 일성록 등 관찬기록을 통해 짚어볼 수 있으며 '김제 벽골제'가 수리정책의 쟁점으로 거론됨을 확인할 수 있다.

금곡 송내회(1791~1867년)가 지은 문량

▶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벽골제 사료집성' 출간

2012년부터 조사해 온 관련 사료 82건 선별

고지도·역사 인문지리 수리정책 등 6개 장 구성

공 조간의 일대기인 고려문헌시종좌승조공행장에서는 악룡을 물리치고 벽골제 용을 수호하여 황금 들녘의 유력가문으로 성장하는 김제 조씨 가문의 가문설화와 벽골제와의 상관성을 보여준다. 조간은 그 간 생몰년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 번



역을 통해 생몰연대가 밝혀졌다.

또 부호군송재송공행장을 통해선 김제 서예계의 거두인 송재 송일중의 일생과 그에 부처진 각종 설화, 그리고 사재를 털어 벽골제의 기능을 정비한 물길 30리 정비공사를 확인할 수 있다. 송공 행장은 호

남 삼대 천재로 일컬어지는 이재 황운석의 이재유고에 실려 있으며 이번 집성에서 전문을 번역하여 실었다.

행장의 기록에서는 송일중 생몰연대(1632~1717년) 내에 정비된 송공거 물길 30리는 집성의 다른 기록들과 만난다. 또 한명의 호남 천재인 존재 위백규의 문집인 존재집 연보에서 는 위백규가 1778년에 '벽골제를 구경하고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1863년 대동지지의 기록 '벽골제 조선 중엽 수축, 제방 길이 2600보, 제방 둘레 80리 및 특산물'에 대한 기술은 앞의 송공행장과 존재집, 그리고 대동지지로 연계된 조선 후기의 벽골제를 증언한다.

벽골제 시문 장에서는 수리시설 벽골제가 펼쳐보였을 경관과 정취, 시적 정서를 볼 수 있다. 벽골제를 오고 간 수십 수백 척의 배(벽골제에서 뱃 이집을 보내며, 박 의중)와 거울처럼 주변을 담아내었을 벽골제의 풍광(삼례역에서 자며, 김시습), 벽골제에서 연정을 나누었을 연인들에 대한 회상(소회를 대신하여, 김제민) 등 관계수리라는 틀 너머의 벽골제를 마주 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장수 동촌리 가야고분군 전북도 기념물 132호 지정

장수군(군수 최용득)은 장수 동촌리 가야고분군이 전라북도 기념물 제132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장수 동촌리 가야고분군은 장수를 두산리 4번지와 동촌리 산26-1번지 일원으로 마방산 자락에 자리한 가야계 수장총 묘역으로 80여기의 왕릉급 고총고분이 자리하고 있다.

이고분군 중 직경 20m~30m 내외의 중대형 고분이 상당수 차지하며, 지금까지 3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호석을 두르지 않은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됐으며, 다양한 가야계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이 장수동촌리에서 2015년 실시한 발굴조사에서는 가야문화권 최초로 편자가 출토돼 학계의 관심이 대두돼 왔다.

이는 동촌리 가야고분은 삼릉리 가야고분군과 더불어 장수지역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성장했던 가야계 독립적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이번 도기념물 지정은 장수지역 가야문화유산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적절한 보존대책을 강구,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희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까미유 끌로델'

세상에서 버림받은 비운의 예술가의 기억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내일·11일 무료 상영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 4층)은 <매주 만나는 Jeonju IFF>작품으로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 월드 시네마스케이트 섹션 상영작인 '까미유 끌로델'을 오는 4일과 11일 오후 1시 30분에 무료로 상영한다.

'까미유 끌로델'은 한 정신병원에 수감돼 세상에서 버림받은 비운의 예술가의 기억을 담은 작품이다.

이는 까미유 끌로델이 로댕과 결별 후, 20여 년이 지난 삶을 다룬다.

영화는 친동생이자 작가인 폴 끌로델과 주고받은 서신과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정신병원에서 동생 폴을 기다리다가 그와 짧은 대화를 나눈 3일간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프랑스 남부의 한 정신병원에 수감된 까미유 끌로델. 그녀는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기도, 다시는 조각을 할 수도 없는 고립 상태에 놓여있다. 메마르고 적막한 풍경과 병원 환자들의 절규가 하루하루 숨을 쉰다. 그녀는 유일한 희망이지만 그토록 기다려왔던 동생과의 만남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어긋나기만 한다.

영화는 전체 작가 브루노 뒤몽과 프랑스 대표 배우 줄리엣 비노쉬가 만나 화제를 모았으며, 줄리엣 비노쉬는 끌로델의 비극적 삶과 예술에 대한 갈망을 절제된 연기로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영화관람은 각 회차 1시간 전부터 티켓박스에서 선착순(1인 1매)으로 좌석 지정은 받은 후, 상영 시작 15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다.

**문의 063-231-3377.

/정해은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강좌 '청출어람' 수강생 모집

9일부터 17일까지 일반인 대상

국악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된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2월 9일부터 17일까지 일반인 국악강좌(청출어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국악강좌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초급과정의 장구장단과 심화과정의 대금, 한국무용반을 증설하였다.

초급 6개 강좌(대금, 해금, 판소리, 한국무용, 가야금, 장구장단), 중급 5개 강좌(대금, 해금, 판소리, 한국무용, 가야금병창), 심화 2개 강좌(대금, 한국무용)로 개설된다. 심화과정은 국악강좌를 지속적으로 수강했던 수강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새롭게 마련됐으며, 꾸준히 인기를 얻었던

대금과 한국무용 2개 강좌로 개설된다. 초급과정은 3월~6월 매주(화) 오후 7시(15주 과정), 중급과정은 3월~11월 매주(목) 오후 7시(30주 과정), 심화과정은 3월~11월 매주(수) 오후 7시(30주 과정)로 초급과 심화는 1년 장기과정으로 운영된다.

일반인 국악강좌(청출어람) 수강신청접수는 2월 9일 오전 9시~오후 5일(금) 오후 6시까지 전화접수(063-620-2319)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으며, 수강료는 초급 6만원, 중급과 심화는 12만원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웹드라마 '한식명탐정', 네이버TV 송출

전주영상제작업체 인포커스는 2016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우수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한식명탐정을 지난 1일부터 네이버TV를 통해 송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주에서 최초로 제작 웹드라마 한식명탐정은 전주국제한식조리학교를 졸업한 청년, 한정식이 남부시장 청년몰에 한식명탐정이라는 가게를 오픈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전주국제한식조리학교, 전주시청, 덕진공원 등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총 6부작으로 제작된 드라마는 1·2회 '소스의 맛을 찾아라!', 3·4회 '내 인생 반전 목사발', 5·6회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을'로 구성됐다.

드라마에는 온라인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연기자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극배우가 함께 열연을 펼쳤다.

한정식 역에 홍아권(‘뱀파이어 탐정’의 다수)과 강해리 역에 박수연(2016년 전북독립영화제 개막작 ‘숨바꼭질’의 다수)이 주인공을 맡았으며, 김순하 역에 이부열(창작극회), 최수지 역에 윤재인(전 KBS나나운서·웹드라마 ‘행복 100km’의 다수) 등이 출연했다. /정해은 기자

따라보며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3일>



▶쥐띠

48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니 매사에 주의하라. 60년생: 작은 금액이 모이면 크게 되니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72년생: 뒷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되니 적군 진행하라. 84년생: 작은일은 가능하나 큰일은 무리가 따르니 주의하라.



▶용띠

52년생: 성급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면 후회할 상황이 발생하니 인내하고 기다려라.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라.

76년생: 주위의 질투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88년생: 뒷 사람의 인정을 받는 운.



▶원숭이띠

56년생: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 68년생: 대외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좋으나 사리에 처우해 행동하면 화가 따르니 조심하라.

80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하라. 대가없이 주는 사람이 아니다. 92년생: 동기감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이다.



▶소띠

49년생: 큰 움직임만 피한다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1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매사에 주의하면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73년생: 포기하지않고 노력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85년생: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긴다.



▶뱀띠

53년생: 계획의 변동, 변화는 실패를 불러오니 주의하라. 65년생: 결과는 좋다. 당차게 행동하면 상대에게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77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9년생: 늦은 오후에는 운이 막히게 되니 부지런히 움직여라.



▶뱀띠

57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니 나이갈 때와 물러날 때를 구분하라. 6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주의하라.

8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끈질기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운이다. 93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



▶호랑이띠

50년생: 매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운이니 경거망동을 삼가라. 62년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운.

74년생: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8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 것.



▶말띠

54년생: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우니 큰 변화나 욕심은 금물이다. 66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니 생각하고 행동하라.

78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날이다. 동기감과 약속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패수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개띠

46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심한 운이다. 58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70년생: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82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 무리는 금물.



▶토끼띠

51년생: 크고 멀리 보아야 하는 운이다. 63년생: 손재수가 있는 운이니 타인과의 화합에는 좋은 날이다.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전이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7년생: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운이니 주의하라.



▶양띠

55년생: 매사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7년생: 망설이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79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혼자 해결해 나가야만 결실이 있을 것이다. 9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알기말부 하다가는 시비를 면치 못한다.



▶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으니 실수를 주의하라. 59년생: 타인에게 오향을 살 수 있는 운이니 지나친 호의를 주의하고 언행을 삼가라.

71년생: 걸의 모습보다는 내실에 치중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